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70)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16강 제2장, 수보리 일어나 가르침을 청하다

몇 회의 해설로, 야부의 격외의 선, 촌철살인이 우리가 읽는 <금강경>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전광석화 같은 선기를 제 무딘 붓이 한사코 붙들어 보려 했는데, 그 번개의 꼬리를 잡기, 글쎄, 턱없이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직 노래가 더 있으나, 그만 접고 제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야기는, 탁발을 마치고 거처로 돌아온 붓다에게, 장로 "수보리(善現)가 일어나(起) 질문을 던지는(請) 것"으로 시작합니다.

서막이 끝나고 연극은 이제 본격 본론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수보리는 대중들을 대표하여 질문 중의 질문을 던집니다. "위대한 진리를 향해 발심(發心)한 사람들은 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길을 나서야 합니까." 붓다는 그 질문을 가상히 여기시고, "내 이제 대답해 주겠으니, 새겨들으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입니다.

제 2장 선현기청분(善現起請分)

[원문] 時長老須菩提, 在大衆中, 卽從座起, 偏袒右肩, 右膝着地, 合掌恭敬, 而白佛言, 希有世尊, 如來善護念諸菩薩, 善付囑諸菩薩. 世尊善男子善女人,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應云何住, 云何降伏其心. 佛言, 善哉善哉, 須菩提. 如汝所說. 如來善護念諸菩薩, 善付囑諸菩薩, 汝今諦請. 當爲汝說. 善男子善女人, 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應如是住, 如是降伏其心. 唯然世尊, 願樂欲聞.

[언해] 시(時)에 장로 수보리가 대중(大衆)에 있어, 바로 좌(座)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 벗고, 오른 무릎 땅에 대어, 합장공경하사와, 부처께 사뢰되, "드무신 세존하! 여래가 제(諸) 보살을 이대(*잘) 호지(護持)하야 념(念)하시며, 제 보살을 이대 부촉(咐囑)하시나니. 세존하! 선남자 선여인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ㅅ마음 발하니, 반드시 어찌 주(住)하며, 어찌 그 마음을 항복(降伏)시키리이꼬?"

부처께서 일르시되, "좋다, 좋다, 수보리야! 네 말같이, 여래가 제 보살을 이대 호념(護念)하며, 제 보살을 이대 부촉하나니. 네 이제 자세히 들어라. 반드시 너 위하여 일르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아뇩다라삼먁삼보리ㅅ심을 발하니, 반드시 이같이 주(住)하며, 이같이 그 마음을 항복시킬지니라."

"유연(唯然), 세존하! 듣잡고저 원요(願樂)하삽노이다."

[번역] 이때 수보리 어른이, 대중 속에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가사를 벗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 공경하면서, 붓다께 사뢰었다. "희귀한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여래(如來)는 보살들을 잘 지켜주시며, 또한 잘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여기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더 없이 높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 어떻게 그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 그 마음을 제어해야 하겠습니까."

붓다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수보리여, 훌륭하다. 네가 말한 대로, 여래는 보살들을 잘 지켜주시며, 또한 잘 이끌어 주시고 계신다. 너 이제 똑똑히 들어라. 내 너를 위하여 말하리라.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 더 없이 높고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할 때, 그 마음을 반드시 이렇게 다잡고, 이렇게 제어해야 하느니라."

"그리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기꺼이 듣기를 원하옵니다."

수보리와 사리불

장로 수보리(수부티)는 붓다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강의 처음에 기원정사(祇樹給孤獨園)의 건립을 둘러싼 아름다운 이야기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수보리는 바로 그 사람, 황금 동전을 깔아 기원정사를 지은 아나타핀디카, 즉 수닷타 장자의 조카입니다. 정사를 완공한 기념으로 붓다가 행한 강연에 감화를 받아 출가했습니다. 다른 유파의 인물들에게 핍박과 모욕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기품을 지니고 있었다 합니다.

붓다의 제자 가운데, 소승에서의 중심인물은 단연 사리불(사리푸트라)이었습니다. 그는 붓다보다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일찍이 교리를 정비하고 교단을 체계화해 놓았습니다. 대승에 오면 그러나, 이 사리불은 이해력이 좀 뒤떨어진, 대승의 큰 뜻을 잘 알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반야심경>은 붓다가 못난(?) 그를 "깨우치기 위해," 가르침을 베푸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경>에 등장하는 수보리의 위상은 좀 다릅니다.

그는 붓다와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붓다와 대등하다면 어폐가 있겠지만, 어깨 근처에는 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대승 반야부 경전들이, 그를 누구보다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과 공(空)의 취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혜능 또한 수보리를, '우리(唐)말로, 해공(解空), 즉 공(空)의 이해에 뛰어난 사람으로 의역한다' 고 적어 두었습니다.

별 도움 안 되는(?) 제자들

<논어>에서 공자는 첫째가는 제자 안연(顔淵)을 두고,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라고 평했습니다. 의아해 하는 제자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그는 도통 질문을 하거나 토를 다는 법이 없다. 그는 나를 깨우쳐 주는 바가 없다. 그러나, 물러나 행하는 것을 보고, 그가 내 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자에 대한 공자의 찬탄과 동지의식이 여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안연은 나이 서른이 채 못 되어서 공자보다 일찍 죽었고, 공자는 슬픔에 못 이겨, "하늘이 나를 버렸다(天喪我)"고 울부짖었습니다. 제자들이 체신을 들먹이자, "그가 아니면, 대체 누구를 위해서 울겠느냐"고 뿌리쳤습니다. 유교가 근엄한 도학자의 얼굴로 굳어 있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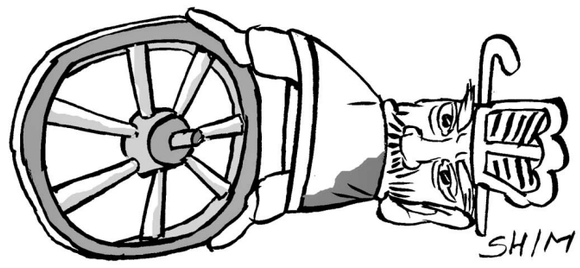
내친 김에 에피소드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슬퍼하던 공자를 보고, 안연의 아버지가 장례비용에 쓰자고, 공자의 낡은 수레를 팔 것을 제안합니다. 겹관을 살 비용이 모자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안에 공자의 반응이, 독자 여러분 생각에,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재물이 어디 중한가, 그토록 사랑하는 제자를 위해 그쯤이야!" 했을까요.

천만에 말씀, 만만에 콩떡입니다. 공자는 토라져서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을 때도 겉관은 못해 주었다." 불편한 심기로 기어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나는 한때 대부를 지낸 몸으로, 수레 없이 걸어다닐 수는 없다. 암, 없고말고…" 이 쩨쩨한 고집(?)에 후대의 학자들이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별별 해석과 체면 살리기가 다 횡행했으나, 저는 공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읽습니다. 그는 진정, 사람의 피와 살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이거요, 다 <논어>에 실린, 믿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각설, 붓다와 수부티의 관계가 이에 견줄 만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안 해도 뜻을 짐작하는 사람, 한 마디 말이면 백 마디를 가슴에 풀어놓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좋겠지요. 동양 전통에서는 유교든 노장이든, 불교든 그래서, 이신전심(以心傳心), '말 이전에 오가는 교감' 을 가장 중시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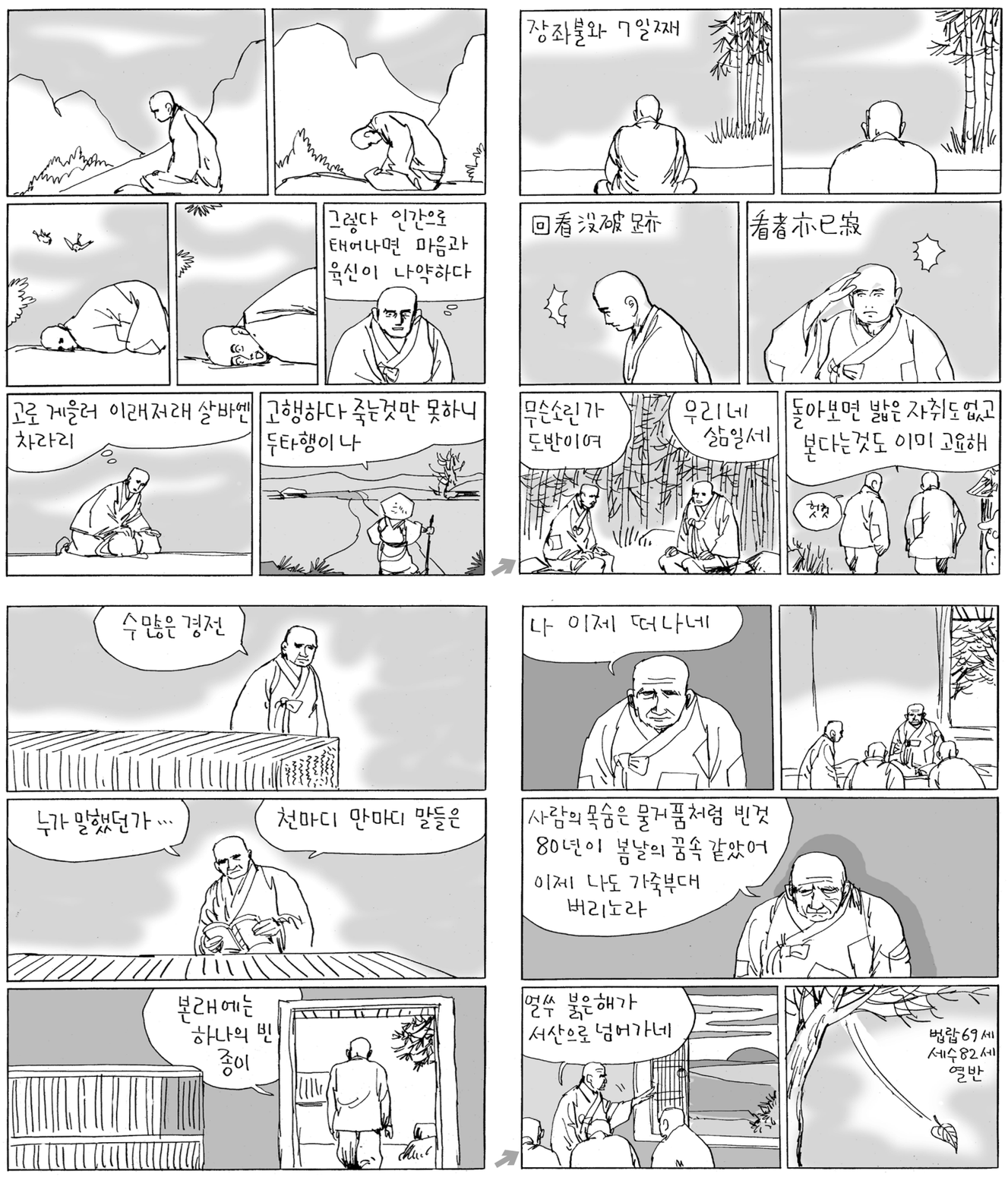
<반야심경> 사리불, <금강경> 수보리



주장자따라…

⑫ 원증 국사의 '봄날의 꿈'

조태호



원증 국사(圓證國師:1301~1382): 고려말 고승 보우. 원에가서 청공(淸珙)의 법을 이어받아 임제종의 법손이 됨. 우왕때 사나사를 중건하고 소설암에서 입적.

네티즌 교리문답

점심(點心)에 얽힌 불교사상은?

문 점심시간은 가장 왕성한 활동력을 보인 후 먹는 음식입니다. 그 맛이 다른 시간대에 비해 매우 각별할 정도지요. 그런데 이 말이 불교용어라고 들었습니다. 점심과 불교,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식신)

답 1 : 우리는 일상에서 흔히 낮에 먹는 식사를 점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점심이란 낱말의 불교의 원래적 의미는 무척 다르지요. 점심의 본래의미는 선종에서 야식을 먹기 전에 먹는 소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음식으로서 뱃속에 점을 찍을 만큼 적은 양의 식사를 가리키는 말' 인 것입니다. 그저 빈속에 간단하게 요기가 될 정도의 음식의 양으로 시장기를 모면한다는 것으로 보아 수행자들의 간식정도로 이해될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낮에 먹는 식사로 의미가 변해 중식 오반 등의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식도락가)

답 2 : 점심에 얽힌 유명한 공안하나를 소개해보지요. <금강경>의 대가였던 덕산 선사가 남종선을 격파하겠다는 뜻을 품고 예주에 이르렀습니다. 배가 고프던 차에 떡 파는 노파를 만났지요. 노파가 덕산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그 보따리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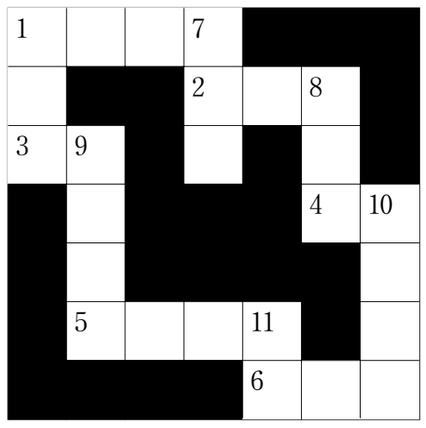
"자네가 어찌 알겠는가마는 '금강경' 에 관한 논서가 들어있네."

"스님 과거의 마음을 포착할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을 포착할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을 포착할 수 없다고 그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께서는 그 어느 마음(心)에 점(點)을 찍으시겠습니까? 제대로 대답하면 점심공양을 올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냥 가십시오." 떡 파는 노파의 말에 말문이 막힌 덕산 선사는 그 길로 숭산선사를 찾아가 선을 닦아 활연대오하기에 이릅니다.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을 논한 점심의 선문답은 일상의 희화화를 통한 깨침의 세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명장면이기도 하지요. (선지식)

답 3 : 불가에서는 전통적으로 올바른 수행을 위해 소식을 권장해왔습니다. 넉넉한 음식섭취가 수행에 많은 장애를 낳을 뿐만 아니라 시주자들의 시은에 대해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뱃속에 점을 찍을 만큼만 먹으란 것은 대단한 인내심과 절제심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수행자들이 생사일대사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일의일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면 점심의 의미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재가불자)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조선 후기의 선사로 우리나라 다도를 정립한 스님 2. 용왕의 뇌 속에서 나왔다고 하는 보주(寶珠) 3. 공양미 삼 백석에 팔려 인당수에 빠진 여인 4. 선사의 언행록에서 가려 뽑은 이야기, 공부 점검에 사용됨 5. 잉어과의 열대어로 타이거 바브라고도 함 6. 이문식이 비리형사로 등장하는 영화 '○○○'

세로 1. 처음으로 불도를 깨닫고자 발원하는 마음 7. 지행(止行), 외부의 사물에 끌려 다니는 마음의 산란을 막는 수행 8. 영화 · 연극 등을 포함한 광의(廣義)의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중심인물 9. 말을 거침없이 잘하는 모양을 비유한 말 10. 가난한 생활 가운데서도 도를 즐김 11. 더없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의 티베트 말.